

#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의 여주인공의 탈속적 자기공간 추구에 대한 비교 연구

한길연\*

차례

1. 서론
2. 탈속적 자기공간을 추구하는 양상의 동이(同異)
3. 탈속적 자기공간을 추구하는 원인의 차이
4. 여성의 공간과 관련한 작품의식의 차이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여주인공이 시대를 떠나 탈속적 자기공간으로 향하는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 두 작품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당대 여성의 주체적 인식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는 한편, 공간의식과 관련한 두 작품의 의식적 지향성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두 작품에서의 탈속적 자기공간은 선계(仙界)와 흡사하게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당대 현실에서 고통을 겪었던 여성들이 한시 등을 통해 상상 속에서 지향했던 선계를 실제적인 공간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었다. 관념화된 이상을 현실화된 실재로 그려냄으로써 여성의 새로운 대안공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취미삼선록>에서는 여주인공이 일시적으로 탈속적 자기공간을 찾았다면, <화정선행록>에서는 여주인공이 지속적으로 탈속적 자기공간에 머문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 원인은 <취미삼선록>의 여주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인공이 적국(敵國)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못한 남편을 만났다는 특수한 상황이 부각되는 가운데, 별다른 자기각성 없이 자기공간으로 향한다면, <화정선행록>의 여주인공은 적국보다 열세의 상황에서, 군자형 남편과의 불화를 통해 당대 남성 일반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대외적 활약을 통한 자기각성 속에서 자기공간으로 향하였기 때문임을 규명하였다.

<취미삼선록>의 탈속적 자기공간이 시가(媿家)에 대한 ‘일시적 일탈공간’이라면, <화정선행록>의 탈속적 자기공간은 시가에 대한 ‘근원적 대체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핵심어 : 취미삼선록, 화정선행록, 여성, 공간, 공간문화, 탈속적 자기공간, 일시적 일탈공간, 근원적 대체공간

## 1. 서론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며 일상생활을 재코드화하는 것으로, 공간의 물질성과 일상성을 복원하는 분석틀은 가부장적 체제와 결부되는 민족, 계급, 성(차별) 문제를 부각시켜 주는 한편 여성의 주체화와 관련한 여성주의 문화론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sup>1)</sup> 이처럼 여성에게 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특히 ‘집’이라는 근원적 공간에 대한 탐색은 공간과 관련한 여성주의 문화론의 주축을 이룰 수 있다.

집은 인간에게 안락함과 행복감을 제공하는 근원적인 공간이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남성은 결혼을 해도 삶의 터전이 계속 이어지는 데 반해,

1) 태혜숙, 『한국의 식민지 근대체험과 여성공간-여성주의 문화론적 접근을 위하여』, 『한국여성학』 20, 한국여성학회, 2004, 33~56쪽. 이 논문에서는 르페브르(Lefebvre)와 하루투니안(Harootunian)의 공간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 비슬라르, 『공간의 시학』(곽광수 옮김), 민음사, 1990, 113~156쪽.

여성은 출가외인이 되어 단절과 시련만이 남아 있을 뿐 재귀환이나 재편입이 없게 된다.<sup>3)</sup>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철저히 시행되었던 조선후기에 시대이라는 공간은 인락함과 행복감을 제공하는 공간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허다하다. ‘삼종지도(三從之道)’라는 이데올로기 아래 여성은 남편에게 귀속된 존재로 취급되고, 일부다처제 하에서 한 남편을 두고 다수의 여성이 경쟁해야 했던 당대에 여성에게 집은 특히 시가(媿家)는 가혹한 공간이었다.<sup>4)</sup>

역할상의 위치에서뿐만 아니라 공간구조 자체에서도 집은 여성에게 불리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가옥의 공간구조에는 특정시대의 이념과 체제를 받아들이고 관철시키려는 인간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는데, 조선 시대에는 가부장제의 여러 강화 기제 중의 하나로서 여성의 공간을 통제하였다. 상호보완성을 의미하는 음양원리가 남성과 여성의 상하위계를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왜곡되었고, 이러한 서열적인 남녀위계는 공간분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결국 조선시대 집의 공간구조에는 가부장의 막강한 의사결정권 아래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의식이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여성은 공간상으로도 열등한 위치에 처하였던 것이다.<sup>5)</sup>

그런데 고전소설 속에는 당대의 이러한 현실을 뛰어넘어 시가를 떠나

---

3) 김열규, 『여성과 집에 관한 시론』, 김열규 외, 『가와 가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8, 5~18쪽.

4) 조선후기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귀속된 존재로서의 삼종지도가 강요되고 남성은 중혼·축첩·매처(賣妻) 등의 특권이 허용되는 가운데, 시대이라는 공간에서 여성은 매우 성차별적인 위치에 처하였다.(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 한울아카데미, 2003, 1~200쪽)

5) 김영선, 『조선시대 양반가옥의 공간구조를 통해 본 여성통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87쪽; 홍형옥, 『조선후반기 가족의 주거조절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보』 4, 한국민속학회, 1994, 139~175쪽; 박부진, 『한국사회의 공간문화와 성차(性差)』, 『여성가족생활연구』 4,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1999, 137~157쪽 참조.

자신만의 독자적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취미삼선록>의 무양, 여읍, 관도 등의 세 공주, <화정선행록>의 충효혜,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등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다.<sup>6)</sup> 이들은 혼인한 뒤에 남편 혹은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적국(敵國)<sup>7)</sup>과 참여한 갈등을 겪다가 시대를 떠나 ‘탈속적 자기공간’을 지향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탈속적 자기공간’이란, 세상살이의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이루는 공간을 의미한다. 특히 조선후기 여성에게 있어서 ‘탈속적 자기공간’이란, 당대 결혼한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본적 장소인 시댁을 벗어나 구축한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취미삼선록>의 무양, 여읍, 관도 등의 세 공주, <화정선행록>의 충효혜,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등은 당대 여성의 일반적인 공간문화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공간문화를 성취하고 있는 인물들로, 여성의 공간문화에 대한 새로운 단초를 마련해 줄 수 있기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취미삼선록>의 세 공주와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자기만의 공간을 지향하는 측면이 매우 혁신적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으면서도 미세한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우선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은 여성의 공간과 관련하여 의

6) 이들 고전소설에서 시댁을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을 지향하는 인물들은 여성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1879년 입센의 작품 <인형의 집>에서 자신을 노예처럼 대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존재가 집에서 인형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과감히 문을 나서는 로라처럼, 이들 또한 집안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거나 본인 스스로 집에서의 하찮은 위치를 깨닫고 집을 나서게 된다. 그것도 조선후기에 이미 이런 작품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요한다.

7)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나 첩을 말하는 것으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서로 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적국(敵國)이라 표현한 것이다.

미 있는 양상들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무양공주 등의 세 공주<sup>8)</sup>가 ‘취미궁’이라는 탈속 공간에서 남편을 거부하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공간을 꿈꾸는 문제적인 장면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취미삼선록〉은 많은 주목을 받아온 작품이다.<sup>9)</sup> 그런데 〈화정선행록〉에서도 충효혜 즉 화정공주가 남편을 거부하고 ‘성의궁’이라는 탈속 공간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공간을 꿈꾸는 장면이 나온다.<sup>10)</sup>

두 작품 모두 여주인공이 천자로부터 하사받은 탈속적 자기공간에서,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곳에 들어오려는 남성인물과 호쾌하게 맞서는 장면까지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하다. 〈유씨삼대록〉

---

8) 〈취미삼선록〉에서는 무양, 여읍, 관도 세 명의 공주가 등장한다. 이 중에서 무양공주가 서사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에 무양공주를 중심으로 하여 〈화정선행록〉의 충효혜와 비교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9) 〈취미삼선록〉에 관한 주요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소인호, 「〈취미삼선록〉 연구」, 『국어국문학』 113, 국어국문학회, 1995, 171~194쪽 ; 이승복,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의 성격」,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283~322쪽 ; 구선정, 「〈취미삼선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105쪽 ; 임치균, 「〈취미삼선록〉 연구-〈옥환기봉〉, 〈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351~378쪽. 〈취미삼선록〉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연작 관계에 있는 〈옥환기봉〉, 〈한조삼성기봉〉과의 관계를 규명한 논의 등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0) 〈화정선행록〉의 ‘충효혜’에 대해서는 한길연,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 영웅에 관한 소고」,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325~355쪽에서 〈임화정연〉의 석가월과 함께 여성영웅 중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독특한 인물의 한 명으로서 논의한 바 있다.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여성의 공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 등과의 비교를 통해 이 인물이 지니는 의미를 보다 분명히 부각시키고자 한다. 특히 〈화정선행록〉에 관한 최근의 연구(김미선, 「〈화정선행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54쪽)에서 충효혜가 탈속 공간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 “여화위남(女化爲男)하여 남성의 역할을 한 것이 여성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보면서 충효혜를 “유교적 덕목인 부덕을 추구하는 여성”으로서 평가한 것은 작품의 본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자 본 논의를 진행한다.

의 설초벽에서 볼 수 있듯, 여타의 작품에서는 자기만의 공간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오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sup>11)</sup> 그런데 이 두 작품은 남편의 출입마저도 허용하지 않은 채 세상과 단절된 공간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 있다. 특히 이러한 탈속적 자기공간이 선계(仙界)와 같은 이상적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도 흡사하다.

다음으로 두 작품은 제목 자체에서 여성중심적인 색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취미삼선록’이라는 제목은 ‘취미궁의 세 신선에 관한 이야기’란 뜻으로, 그 세 신선이란 곧 여주인공인 무양, 여읍, 관도 세 공주를 말한다. ‘화정선행록’이라는 제목은 ‘화정공주의 선행에 관한 이야기’란 뜻으로, 화정공주란 바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공으로 화정공주라는 직첩을 받은 여주인공 충효혜를 말한다. 이처럼 제목에서부터 여성중심적인 의식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공통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탈속 공간을 추구하는 직접적인 양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탈속 공간에서의 지속성 여부이다. <취미삼선록>에서는 탈속적 자기공간에서 여주인공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양상을 보인다면, <화정선행록>에서는 종신토록 머무는 양상을 보인다. <취미삼선록>에서는 무양공주 등이 ‘취미궁’이라는 탈속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이후 시택으로 복귀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평생토록 ‘성의궁’이란 탈속 공간에서 지내면서 다시 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는 것이다.

11) <유씨삼대록>의 설초벽에 관해서는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171~191쪽에서 논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이를 탈속 공간을 추구하게 된 원인의 차이와 관련지어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적국과의 갈등양상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가 늑혼(勒婚)으로 하가(下嫁)한 여성으로서 사대부 여성인 적국과 갈등을 겪는다면,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자신의 정혼자가 공주와 늑혼하게 됨으로써 하가한 공주인 적국과 갈등을 겪는다. 두 작품에서 여주인공이 정반대의 경험을 하는 만큼, 그 입지가 다른 것이다.

둘째, 남편과의 갈등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여주인공이 〈취미삼선록〉에서는 소인형 남편과 갈등을 겪는 데 반해, 〈화정선행록〉에서는 군자형 남편과 갈등을 겪는다. 〈취미삼선록〉에서 무양공주의 남편인 양송은 신의 없고 방탕한 인물로 등장한다.<sup>12)</sup> 이러한 성격적 결함으로 말미암아 양송은 무양공주와 갈등을 빚어낸다. 반면, 〈화정선행록〉에서 충효혜의 남편인 임창연은 신의 있고 정대한 인물로 등장한다. 그럼에도 그는 당대 일반적인 사대부 남성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수하처자로서만 대하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충효혜와 마찰을 겪는다. 〈취미삼선록〉에서 여주인공은 남편의 성격적 결함을 문제 삼는다면, 〈화정선행록〉에서 여주인공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태도 일반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대외 경험의 유무이다.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가 궁궐이나 시택 밖을 나간 적이 없는 규방 속의 여성으로서 등장한다면,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규방을 떠나 이계(異界)에서 도법과 천문지리를 습득한 후 전장(戰場)에 나가 적군을 물리치는 등의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즉, 여주인공의 경험의 폭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무양공주와 공적 영역에도 진출한 적이 있는 충효

12) 이러한 양상은 단지 무양공주의 남편뿐만 아니라 여읍공주, 관도공주의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혜는 경험의 폭이 다르기에 인식 수준에서도 차이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원인들에 따라 두 작품에서 여주인공이 자기공간을 지향하는 데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두 작품에서 여주인공의 탈속적 자기공간의 추구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공통점을 통해서 여성의 탈속적 자기공간의 실현이 지니는 의미를 당대 사회문화사와 관련하여 규명하며, 차이점을 통해서 두 작품의 공간에 대한 지향의식의 차이 및 당대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두 작품의 주제의식의 근간을 고구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 2. 탈속적 자기공간을 추구하는 양상의 동이(同異)

### 2.1. 공통점 : 선계(仙界)의 현실화를 통한 대안공간의 제시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와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모두 결혼한 뒤 남편 혹은 적국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다가 시댁을 떠나 탈속적 자기공간으로 향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두 작품 모두 결혼한 여성이 시댁을 떠나 자기만의 공간을 구축한다는, 당대로서는 파격적인 모티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천자로부터 하사받은 공간에서 천자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단서철권(丹書鐵券)을 내걸고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낸다.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는 천자가 지어준 ‘취미궁’이라는 공간에서,

13)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위해 <취미삼선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상(上)·하(下)본을 대상으로, <화정선행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본 15권 15책을 대상으로 한다.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천자가 지어준 ‘성의궁’이라는 공간에서 타인의 출입은 물론 남편의 출입까지도 허용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은 조선후기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향유하기 어려운 공간으로서 여성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도 〈취미삼선록〉의 취미궁에 대해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 중심의 일방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의 횡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인간 평등의 자유를 추구함으로써 주체적인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공간”<sup>14)</sup>으로, 〈화정선행록〉의 성의궁에 대해서는 “남성에게 종속된 처지에서 벗어나 여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고 있는” 곳으로 “여성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룩한 ‘황홀한 경지’인 ‘다른 세계(Other World)’”<sup>15)</sup>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간의 형상화는 어떠한 사회문화적 기반에서 가능했던 것인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들 공간이 ‘선계(仙界)’와 같은 곳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취미삼선록〉에서 취미궁은 다음과 같은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강산의 절승(絶勝)은 것과 추경(秋景)이 명여(明麗)한디 봉만(峰巒)이  
츄고(秋高) 폭포녹수(瀑布綠水) 괴이(奇異)하며 기화야초(奇花野草) 향기  
옹비(壅鼻)고 괴금(奇禽)이 슈(獸) 갖지 아인 것이 업서 더니(大內) 원  
중(園中)의 승(勝)은 곳지 만터라 삼공주(三公主)는 거름이 익어 날드시  
다니며 승경(勝景)을 자랑하고 폭포천(瀑布川)의 관(冠)은을 씻고 년(連  
連) 화봉(花峰)의 좌(座)을 비설(排設)하고 국화시을 서로 읊고 슈륙지춘  
(水陸之餐)을 마시우고 스죽관현(絲竹管絃)은 쓸뒀운지라 향기로운 실과

14) 구선정, 앞의 글, 39쪽.

15) 한길연,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 영웅에 관한 소고」,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349쪽.

(實果)와 기이한 즈을 맛보고 국화봉오리를 머리의 꽃고 궁녀(宮女)을 명  
 혀녀 쌍〃(雙雙)이로 옥저(玉笛)을 불이고 서로 글을 화답(和答)혀녀 (...)  
 (<취미삼선록> 하, 5~6쪽)<sup>16)</sup>

그곳은 경치가 빼어난 가운데 푸른 폭포수가 있고 기이한 화초가 향기  
 를 뿜내며 신이한 짐승이 가득한 곳으로, 이곳에서 무양공주 등의 세 공  
 주는 기이한 차와 향기로운 과일을 맛보며 궁녀들로 하여금 피리를 불게  
 하고 글을 화답하면서 마치 신선처럼 노닌다. 처음 취미궁을 보고 “진실  
 노 노지궁궐(瑤池宮闕)이오 봉니방장(蓬萊方丈)이라”<sup>17)</sup>라고 무양공주가  
 기뻐하였으며, 취미궁에서 노니는 무양공주, 관도공주, 여읍공주 세 사람  
 에 대해 서술자가 “진죽 선누옥녀(仙樓玉女) 갓더라”<sup>18)</sup>라고 표현한 데서  
 볼 수 있듯, 취미궁은 선계와 같은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화정선행록>의 성의궁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선성이 나아가 둘러보고 스스로 일컫러 왈 “츄디(此地)는 천터만산이라  
 봉만(峰巒)은 만혹동 거동이어늘 집을 일우미 좌우로 황룡(黃龍)이 엮디  
 고 난봉(鸞鳳)이 날개를 덮혀 안존 듯 진짓 산인(山人)의 쳐힐 곳이오  
 (...)”(<화정선행록> 14권, 36~67쪽)

충효혜의 시아버지인 임처사가 충효혜가 성의궁으로 옮겨오는 날 잠  
 시 성의궁을 보고 좌우에 황룡이 엮드려 있고 난새와 봉황이 날개를 덮  
 어 앉은 듯한 형상이 산인이 거처할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취미삼선록>의 취미궁에 대해서처럼 성의궁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없  
 지만 그곳이 일반적인 세계와는 다른 곳임을 잘 보여준다.

16) 띄어쓰기와 한자 삼입은 인용자가 한 것이다. 이하 동일하다.

17) <취미삼선록> 상, 66쪽.

18) <취미삼선록> 하, 2~3쪽.

충효혜의 시어머니인 진부인이 “현뵈(賢婦 |) 디상선궂(地上仙客)이 되고자 하니 츠마 막지 못하나 즈뵈 불괘하더니 이제 쳐쇼를 보니 유아 청절(幽雅淸節)하미 니 역시 뜻이 기울고 ㅁ음이 달나지며 도라갈 뜻이 스연하”<sup>19)</sup>라고 토로하는 대목에서도 볼 수 있듯, 성의궁은 선계와 같이 아름다운 곳이기에 처음에는 머느리인 충효혜가 성의궁에 머무는 것을 반대했던 진부인 자신도 돌아갈 생각이 없어지고 그곳에 머물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디상선궂(地上仙客)”, “선관(仙官)”, “신선(神仙)” 등의 말이 〈화정선행록〉에서 자주 거론되는 데서 볼 수 있듯, 충효혜가 머무는 성의궁은 선계와 같은 아름다운 탈속적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에서의 여주인공이 실현하고 있는 자기공간이 선계와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실제로 조선시대 남편 혹은 적국과의 불화로 인해 현실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허난설헌(許蘭雪軒), 김호연재(金浩然齋) 등의 여성들은 한시를 통해 선계를 꿈꾸었다. 허난설헌은 〈유선사(遊仙詞)〉 74수를 통해,<sup>20)</sup> 김호연재는 〈유선사(遊仙詞)〉 6수를 통해<sup>21)</sup> 선계에 대한 강한 지향의식을 드러냈다. 선계 공간에서 신선이 되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한시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당대 여성들은 현실 공간에서 만족하지 못했으나 그렇다고 딱히 다른 공간에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기에, 선계라는 이상향을 통해 현실의 불만족을 대리해소하곤 하였던 것이라 할 수

19) 〈화정선행록〉 14권, 39쪽.

20) 김명희, 『허난설헌의 문학』, 집문당, 1987, 84~117쪽; 이숙희, 『허난설헌과 김호연재의 시세계』, 『한문교육연구』 20,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227~265쪽. 허난설헌은 그 남편 김성립(金誠立)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21) 손찬식, 『호연재 김씨의 시문학 연구』, 열상고전연구회 편, 『호연재 김씨의 생애와 문학』, 보고사, 2005, 180~189쪽; 이숙희, 앞의 논문, 227~263쪽 참조. 호연재 김씨는 송요화(宋堯和)의 부인으로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으나 시가 생활에의 부적응과 남편과의 소원한 관계로 인해 갈등을 겪었던 인물로 나온다.(손찬식, 앞의 논문, 180쪽)

있다.

그런데,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에서는 이러한 선계에 대한 욕망을 보다 현실화하여 선계와 같이 아름다우면서도 속세와는 단절된 탈속공간을 적극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자기만의 세계를 향유하는 여성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면모를 선보이고 있다. 당대 여성들이 상상으로만 꿈꾸었을 선계 공간을 현실에서 재현함으로써 여성인물들이 선경(仙境)처럼 아름다운 공간에서 신선처럼 호젓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들 작품은 당대 여성들이 꿈꾸었을 ‘선계’를 ‘현실적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닮아있다. 관념화된 이상을 현실화된 실재로 그려냄으로써 여성들의 새로운 대안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혼한 뒤에는 시대밖에는 다른 공간은 있을 수 없다는 당대의 지배적인 이념에서 벗어나 여성의 공간에 대한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간을 무조건 긍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첫째로, 무양공주나 충효혜는 천자의 친딸이거나 양녀로, 이러한 공간은 당대 여성 일반이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곳으로서의 제한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둘째로, 이러한 공간은 당대 여성들이 꿈꾸었을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유토피아의 실현이 남성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성을 철저히 배제시킨 채 여성만의 유토피아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품에서 당대 여성들이 꿈꾸었을 선계 공간을 현실적으로 재현해내고 있다는 점은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당대 여성들에게 시대를 벗어난 여성만의 독자적 공간을 꿈꾸게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작품들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관

념상으로 존재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현현하는 것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여주인공이 자신들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관철시키려는 주장 속에는 당대 여성들이 시대에서 겪었을 고충들이 십분 녹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특권층에 관한 이야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많은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당대 여성 대부분이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대한 정합성을 담보하게 된다. 또 비록 남편의 경우에는 이들 여주인공의 입장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지만 이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주는 시아버지의 등장은 당대 일반적인 가부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소통방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sup>22)</sup>

이처럼, 이들 작품은 당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의 일상적인 공간과는 전혀 다른 여성만의 이질적인 공간의 제안을 통해 당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균열시키는 역동적인 긴장감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당대 가부장제적 공간 개념이 지닌 억압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면서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의식에 근거한 여성의 자율적 공간을 창조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 2.2. 차이점 : 일시적 추구하고 지속적 추구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 두 작품은 탈속적 자기공간의 구체적 재현을 통해 당대 여성들의 선계 지향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

22) 두 작품 모두 시아버지의 경우에는 며느리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는 인물로 등장한다. 특히 〈화정선행록〉에서의 충효혜의 시아버지는 송대의 유명한 은사(隱士)인 서호처사(西湖處事) 임포(林逋)로 설정됨으로써 충효혜가 남성 중심의 번극한 세상에서 느끼는 고달픔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인물로 나온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입장을 옹호하는 양상은 뒤에 두 작품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흡사하지만, 그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의 정도 즉 지속성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지속성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여주인공 남편이 부리는 한 바탕의 난동이다. 먼저 <취미삼선록>을 보면 무양공주 등이 ‘취미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나오지 않자 그 남편인 양송 등이 취미궁에 군졸을 이끌고 와서 돌입하려고 한다. 비록 양송 등이 취미궁에 들어오는데 실패하지만, 무양공주 등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부모인 천자와 황후로부터 부덕(婦德)을 쌓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시택에 복귀하게 된다. 무양공주 등은 취미궁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 하지만 부모의 훈계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시택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후 이들은 때때로 취미궁에 들르기도 하나 본 거주지는 시택이 된다.

반면, <화정선행록>에서 충효혜는 ‘성의궁’에서 종신토록 지내는 것으로 귀결된다. 충효혜의 남편인 임창연이 성의궁에 가서 충효혜의 예기를 꺾어 그녀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한 바탕 난리를 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오히려 임창연이 그 부친 임처사로부터 다시는 성의궁에 가지 말라는 엄명을 받으면서 충효혜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머물 것을 더욱 확고히 허락받는다.<sup>23)</sup> 이후 그녀는 다만 절기를 좇아 양가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러 잠시 나올 뿐 성의궁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시부모가 며느리인 충효혜에 대해 “흔갈궂치 무인(撫愛)하나 너심(內心)은 익련(哀憐)호미 김더니 그 뜻이 낙(落落)호야 번극흔 세상을 사세인륜(謝世人倫)호를 즈못 참연(慘然)하나 그 지개(志概)를 아름답다이 너겨 혼연(欣然)이 허락호”<sup>24)</sup>였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또 성의궁으로 오면서 화순공주의 딸인 봉희를 데려오고 아예 자신의 아들

23) 성의궁에 들어가게 되는 시기가 약간 늦추어지긴 하지만, 이곳에서 종신훘도 될 것을 확고하게 허락받게 된다.

24) <화정선해록> 14권, 41쪽.

인 효린은 두고 나오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 성의궁에 머물고자 하는 그녀의 의지가 매우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sup>25)</sup>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지속성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탈속적 자기공간에 머무는 것과 지속적으로 그곳에 머무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차이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일까? 다음 장에서 탈속적 자기공간을 추구하는 원인에 대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두 작품의 의미론적 지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3. 탈속적 자기공간을 추구하는 원인의 차이

#### 3.1. 늙은한 여성으로서의 갈등 / 배우자가 늙은당한 여성으로서의 갈등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와 〈화정선행록〉의 충효혜가 탈속적 자기공간으로 떠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남편의 또 다른 부인과의 갈등 즉 적국과의 갈등이다. 그런데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가 늙은한 여성으로서 사대부가 여성인 적국과 갈등을 겪는 데 반해,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그 배우자가 늙은을 당하게 된 여성으로서 늙은으로 하가한 공주와 갈등을 겪는다는 점에서 대조적인 면모를 보인다.

물론 두 작품에서 여주인공의 적국이 모두 선인형 인물로 등장한다는

---

25) 효린은 임창연의 장자로 대를 이어야 할 인물이기에 충효혜는 효린을 두고 나오고, 대신 화순공주의 딸 봉희를 데리고 간다. 이는 충효혜가 탈속적 자기공간을 지향하기 위해 시댁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힌 것임을 잘 보여준다.

점에서 공통적이며,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늑혼 삽화가 등장하는 대개의 소설에서 늑혼한 공주가 악인이거나 공주의 늑혼 때문에 파혼당하거나 출거당한 여성이 악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sup>26)</sup> 그런데 이 두 작품에서는 늑혼한 여성도, 늑혼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여성도 모두 선인형 인물로 등장한다. 이를 통해 일부다처제의 가부장제가 지닌 결함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선인형 인물과 악인형 인물 간의 갈등일 경우에는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성격적인 결함에 초점이 맞추어지기에 일부다처제가 지닌 제도적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기 마련이다. 그런데 두 작품에서는 여주인공과 여주인공의 적국이 모두 선인형 인물인 가운데 여주인공이 계속해서 자신이 시댁에서 “유무불관(有無不關)”한 존재 즉 ‘있으나마나’ 한 존재라고 언급하게 된다. 이는 그만큼 일부다처제의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이 자기 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탄식일 수 있다.

그럼에도 두 여주인공이 처한 입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먼저 <취미삼선록>을 보면, 여주인공인 무양공주는 광무황제의 장녀로 등장한다. 그녀는 광무황제가 부마를 간선하던 중 우연히 비독을 잘 두는 양송에게 마음을 두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갑자기 늑혼함으로써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양송은 이미 허씨와 혼인한 상태로 허씨가 아름다우나 자신에게 냉담한 것을 꺼려하고 있던 중, 황제가 무양공주를 자신에게 하가시키려 하자 이 사실을 숨기고 황제의 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결혼한 무양공주는 시집에 들어와서야 자신의 남편이 이미 허씨와 혼인하였으며, 허씨가 잠시 친정에 가 있는 상황임을 알게 된다. 이에 무양공주는 다음과 같이 결심한다.

26) 심재숙, 「고전소설에 나타난 늑혼 삽화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873~907쪽 참조.

황상(皇上)이 궁중(宮中)의 거스 만기(萬機)의 다스(多事)히시므로써 부마(駙馬)의 조강(糟糠)이 잇스믈 아지 못히시고 첩(妾)이 능히 안심한 비 아니라 부마의 가스(家事)의 부미 맞당이 쥬장히실 비로디 불행(不幸)이 첩이 황가(皇家)의 여자로 조강(糟糠) 복합(複合)히나 일이 편당(便當)치 못흔 듯히나 이 쇼뉴(所由)을 황상과 쥬달(奏達)히여 상원비(上元妃) 직첩(職牒) 도라보니너 진희(秦姬)의 ㅈ인(罪人)이 되지 아니리라 (<취미삼선록> 상, 17쪽)

무양공주는 양송에게 이미 조강지처인 허씨가 있는 줄 모르고 늑혼으로 양송과 혼인하였으나 혼인한 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스스로 힘써 정실부인의 자리를 허씨에게 돌려보내어 죄인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늑혼한 여성인 무양공주는 자신이 양송과 결혼함으로써 양송의 조강지처였던 허씨가 출거당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자연스레 죄의식을 느낀 것이다. 더욱이 무양공주의 모친인 광후는 광무황제가 즉위하기 전 조강지처였다가 광무황제가 황제로 즉위한 후 음후가 정비가 됨으로써 차비(次妃)로 내쳐진 슬픈 사연을 안고 있었다. 무양공주는 자신의 모친이 겪은 슬픔을 이제 자신이 또 다른 여성에게 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황제에게도 청원하고 시부모에게도 간청하면서 허씨가 시택으로 돌아오도록 힘쓴다.

그런데 온순한 인물인 허씨는 시택으로 돌아온 뒤 자신이 공주와 동렬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은 자리에 앉는 것도 꺼려한다. 무양공주가 허씨를 지극히 대접하면서 자신과 허씨가 양송의 좌·우 부인이 되도록 힘쓰지만, “산계비질(山鷄卑質)노 봉황(鳳凰)의 자리를 갈오오니 황공감골(惶恐感骨)히미 삼생(三生)의 겁기 어려울지라 다만 종신(終身)토록 우루러 견마(犬馬)의 힘을 다히너 섬김을 원히느이다”<sup>27)</sup>라고 허씨가 말

27) <취미삼선록> 상, 38~39쪽.

하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 허씨에게는 공주가 어려운 대상일 수밖에 없다. 무양공주는 자신 때문에 허씨의 처지가 어렵고 난처할 뿐만 아니라 한 때 잘못을 뉘우친 것 같았던 남편이 시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더욱 더 방탕하게 행동하자, “허씨에게 중궤(中饋)와 자녀(子女)을 맞쳐[‘맞겨’의 오기] 부마을 밋들게 호고”<sup>28)</sup> 자신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지낼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부친인 광무황제에게 청하여 ‘취미궁’에서 여읍공주, 관도공주와 함께 지내게 된다.

이처럼 무양공주는 양송과 늑혼하였으나 이미 양송의 조강지처인 허씨가 있기에 갈등을 겪는 인물이다. 그렇기에 무양공주는 정실 자리를 허씨에게 돌려보내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지내려 한다. 그럼에도 권력관계상 무양공주는 천자의 친딸로 허씨보다 우위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무양공주가 허씨를 양송의 정실로서 대접하면서 높여주려 하여도 당초에 허씨의 부친이 “미천(微賤)호 녀즈(女子)로 왕희(王姬)[무양공주] 동렬(同列)치 못호”<sup>29)</sup>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 무양공주와 허씨 사이에는 현격한 거리가 존재한다. 즉, 무양공주는 늑혼으로 하가한 여성으로서의 죄의식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적국인 허씨보다는 권력관계상 우위를 차지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반면,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정혼자가 늑혼을 당함으로써 <취미삼선록>의 허씨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인물로 나온다. 충효혜는 이미 임창연과 정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창연이 과거급제 이후 곧바로 화순공주의 부마로 간택됨으로써 파혼당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비록 임씨 가문에서 파혼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천자가 자신의 딸을 임창연과 늑혼시키려 한다는 소식은 충효혜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28) 위의 책, 42쪽.

29) 위의 책, 28쪽.

아닐 수 없었다. 이는 충효혜의 모친인 장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주야로 울부짖으면서 식음을 전폐한 채 탄식하는 다음의 대목에서 잘 나타난다.

님싱[임창연]의 등양(騰揚)허미 몽미(夢寐) 밧 화순공췌 영광(榮光)을 썩여 초방(椒房)의 가세(佳壻)이 되니 녀(女兒)[충효혜]는 아조 심규(深淵)의 폐인(廢人)이 되어 일생(一生)을 못춧는디라 (<화정선행록> 2권, 6쪽)

장부인의 탄식처럼 충효혜는 임창연이 화순공주와 혼인하게 됨으로써 다른 가문에 시집갈 수도 없이 평생을 “심규의 폐인”으로 마쳐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자신의 정혼자가 갑자기 부마로 간택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충효혜는 자신의 의지나 잘못과는 전혀 관계없이 한평생을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다가 이런 가혹한 상황에 처한 충효혜를 탕자형 인물인 김성광이 겁탈하고자 하자, 충효혜는 결국 투신자살을 결심한다. 다행히 남해 용왕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뒤 이허진인에게 의탁하여 천문리지, 의술, 병법 등을 배움으로써, 이후 전장(戰場)에서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임창연을 음조하여 승리를 이끌어낸다. 이 공으로 충효혜는 천자의 양녀가 되어 ‘화정공주’의 직첩을 받은 뒤, 부마는 두 아내를 둘 수 없다는 통례를 깨고 임창연과 혼인을 이룬다.

그런데 혼인한 뒤에 충효혜는 화순공주와 동기처럼 친하게 지내면서도 암묵적으로는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 선인형 인물로 등장하는 화순공주도 충효혜와 마찬가지로 전인적인 성품의 인물로 나오나 둘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정실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던 처지였던 것이다.<sup>30)</sup> 또 기실 충효혜 자신이 겪어야 했던 그간의

30) 약혼을 한 것은 충효혜가 먼저이고 혼인을 한 것은 화순공주가 먼저이기에 정실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 난처하여 임창연의 좌·우 부인으로 하고 정실 자리를 비워 놓기

허다한 고생들이 다 화순공주 때문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다.

충효혜는 “옥주(玉主) 꺾튼 숙녀(淑女 | ) 니스(內事)를 찰임(察任)호 시미 (….) 첩(妾)은 유무불관(有無不關)호”<sup>31)</sup>라고 말하는데, 이와 유사한 대목이 작품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화정선행록>에서는 일부다처제의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간의 소모적인 경쟁이 지닌 폐해가 잘 드러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길 없는 여성의 비참한 심리가 잘 묻어난다. 충효혜는 이러한 소모적인 경쟁을 피해 자신만의 공간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비록 자신이 큰 공을 세워 천자의 양녀가 되었지만 천자의 친딸인 화순공주와의 관계에서는 권력관계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에 충효혜는 천자에게 자신만의 공간인 ‘성의궁’을 지어줄 것을 부탁하고 그곳에서 종신하게 된다.

요컨대,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가 귀속신분인 공주로서 적국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으면서 적국에게 시혜를 베푸는 입장에서 자기만의 공간으로 향한다면, 이외는 대조적으로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획득신분인 공주로서 적국인 천자의 친생공주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만의 공간으로 향한다.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가 적국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적국과의 관계에서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렇기에 적국과의 갈등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무양공주보다 충효혜에게 더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 3.2. 소인형 남편과의 갈등 / 군자형 남편과의 갈등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와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적국과의 갈

---

는 하였지만, 실상 둘 중 하나는 정실의 책임을 도맡아야 할 처지였다. <화정선행록>에서는 이러한 정실 역할을 충효혜가 아닌 화순공주가 담당하게 된다.

31) <화정선행록> 5권, 73쪽.

등 외에도 바로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탈속적 자기공간을 지향하게 된다. 그런데, 두 작품에서는 여주인공의 남편이 거의 정반대의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먼저 <취미삼선록>에서 무양공주의 남편인 양송은 소인형 인물이다. 그는 비록 외모와 말솜씨는 빼어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리를 저버리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제멋대로 행동한다.

기실 송의 위닌(爲人)이 표일현격(飄逸懸隔)하여 이(利)를 보면 의(義)를 잊고 식(色)을 보면 형실(行實)을 바려 부귀(富貴)의 급(急急)한 마음 간악(奸惡)을 거릿기지 아니하니 (...) 얼굴이 관옥(冠玉) 갖고 풍치(風采) 동인(動人)하며 언변(言辯)이 현하(懸河) 갓트니 지조 절출(絶出)하니 비록 발근 군지(君子)라도 그 마음을 아지 못하니 (...) (<취미삼선록> 상, 13쪽)

양송이 이미 허씨와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무양공주와의 혼인을 이루려 했던 점 또한 부마라는 지위와 공주라는 미녀를 얻기 위해 조강지처인 허씨와의 신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그의 소인됨을 잘 보여준다. 무양공주와 혼인한 뒤에도 미녀만 보면 취하여 희롱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그렇기에 작품 곳곳에서 양송이 “풍뉴탕즈(風流蕩子)”라는 말이 수차례나 언급된다. 소인형 인물 중에서도 전형적인 탕자형(蕩子型)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신흠 초 무양공주는 양송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돌을 안아 물의 잠기고져”<sup>32)</sup>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된다. 그러나 잠시 양송이 잘못을 뉘우치고 호색한 행실을 삼가는 듯하자 무양공주 또한 마음이 누그러진다. 그런데 시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양송이 거리낄 사람이 없어 더욱 더

32) <취미삼선록> 상, 16쪽.

어지럽게 행동하자, 무양공주는 천자에게 다음과 같이 청원하게 된다.

소녀(小女) 천성(天性)이 졸(拙劣)하고 고요(高幽)하니 한가코 담소(淡素)흔 품(品)이 어늘 부마(駙馬)의 성정(性情)이 솟난 물 갖고 화려(華麗)하며 번극(蕃極)하니 주색(主色)으로 황음(荒淫)흔물 즐기고 신의 뜻과 디상 부동(不動)흔온지라 일동일정(一動一靜)이 다 이목(耳目)의 어귀오니 참소 견디미 임의 세월이 오리와 점〃 닌세(人世) 일이 다 괴롭고 념(厭)흔오니 황나(皇爺)와 모후(母后)고 시측(侍側)흔와 궁중(宮中)의 머물미 지원(至願)이오느 부마가 만승지녀(萬乘之女)로 부귀을 탐하고 교룡방즈(驕弄放恣)하녀 궁금(宮禁)의 들고 나지 아니흔다 질척(叱責)이 잣사오니 경기(景概) 말소 썩 혀는 곳을 어더 녀싱(餘生)을 우뉴(遨遊)흔미 원(願)이로쇼이다 (<취미삼선록> 상, 43쪽)

무양공주 자신은 한가롭고 담백한 것을 좋아하나 부마의 성정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음탕하기에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더 이상 참고 견디기 힘들다는 토로이다. 그렇기에 무양공주는 부친인 천자와 모친인 황후를 모시고 궁궐에서 평생을 다하는 것이 소원이거나, 부마가 자신에게 천자의 딸로서 교만방자하여 궁궐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질책할 것이기에 경치가 좋은 곳을 얻어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천자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천자가 그 소원대로 ‘취미궁’을 지어준다.

이는 무양공주와 함께 취미궁에서 지냈던 여읍공주, 관도공주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남편 또한 포악하고 방탕한 인물이기에 이들도 그러한 남편을 피해 무양공주와 함께 취미궁에서 지낼 것을 천자에게 청한다. 반면, 날양공주, 연양공주 등은 남편이 정인군자로서 부부 사이가 좋기에 취미궁에서 지내지 않게 된다. 날양공주 등도 무양공주 등이 취미궁에서 지내게 될 것을 알고는 자신들도 그곳에서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천자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여읍공주가 “우리 형제는 인간(人間)의 한

(恨)이 만코 슬흰 사름이라 산수(山水)의 뜻을 붙쳐 녀싱(餘生)을 오뉴(遨遊)코져 흐거이와 양(兩) 공주는 세상화락(世上和樂)이 극진(極盡)하니 웃지 고초(孤草)흔 심궁(深宮)의 고초(苦楚)을 감심(甘心)하며 또 진속(塵俗) 티끌이 우리 문정(門庭)을 더러리오”<sup>33)</sup>라고 단칼에 그 말을 잘라버리는 데서 볼 수 있듯, 군자형 남편을 만난 날양공주 등은 취미궁에서 지낼 필요가 없고, 남편을 잘못 만난 무양공주 등만이 취미궁에서 지내야 한다는 논리를 〈취미삼선록〉은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취미삼선록〉에서는 못난 소인형 남편을 둔 무양공주 등이 못난 남편을 피해 자신만의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화정선행록〉에서의 충효혜의 남편 임창연은 전형적인 군자형 인물로 등장한다. 충효혜의 부친인 충방이 그의 인물됨을 한 번 보고 그 뼈어난 인물됨에 감탄하여 사위를 삼고자 했을 뿐 아니라 이를 못 믿어하는 자신의 아내에게 “창연의 준일(俊逸)흔 풍되(風度 |) (….) 타일(他日) 황각(黃閣)의 근시(近侍)흔 띠 (….) 덕망(德望)과 지예(才藝) 한상(漢相) 병길(丙吉)<sup>34)</sup>의 아리 아니라”<sup>35)</sup>라고 단언하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 임창연은 덕망과 재주를 갖춘 군자형 인물로 나온다.

〈취미삼선록〉의 양송과는 정반대로, 천자가 자신의 딸 화순공주를 임창연에게 하가시키려 하였을 때 임창연이 자신이 이미 충효혜와 정혼한 사실을 들어 수차레나 천자의 늑혼을 거절하려 했던 점 또한 그가 신의 있고 정대한 군자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는 아내를 제외한 여타의 여성들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인물로 나온다. 또한 양송이 별다른 대외적 활약 없이 주색잡기에만 시간을 허비하는 데 반해, 〈화정선행록〉

33) 〈취미삼선록〉 상, 47쪽.

34) 한(漢)나라 재상이었던 병길(丙吉)은 남에게 너그럽고 자신의 공로를 전혀 입 밖에 내지 않은 자로 유명하였다. 즉 재주와 덕망을 갖춘 명재상으로 회자되었던 것이다.

35) 〈화정선행록〉 2권, 5쪽.

의 임창연은 수차레나 외적을 무찔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내는 충신 중의 충신으로 등장한다.

그럼에도 충효혜는 군자형 인물인 임창연과 같등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임창연이 당대의 일반적인 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충효혜를 수하처자로서만 대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기실 충효혜는 이허진인에게서 도법과 신술을 익힌 뒤 월칭법사로 남장(男裝)하여 위기에 처한 임창연을 구하고 임창연이 통솔하는 군대를 승리로 이끌게 한 경험이 있었다. 그 때는 자신을 지기(知己)로서 존대해 주던 남편이 결혼 후 하루아침에 “그대 날로써 녹”(碌碌)히 보아시미 왜 하려니와 당초(當此)하여 녹의홍상(綠衣紅裳)이 너 눈의 녹” 하니 의연한 슈하쳐지(手下妻子 |)라”<sup>36)</sup>라고 말하면서 자신 아래 복종시키려 한다. 심지어 충효혜가 자신의 부친을 보러 친정에 가는 일상의 소소한 문제에서도 임창연은 쉽게 귀경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에 충효혜는 여자로서 남편의 절제를 받아야만 하는 삶에 불만을 지니게 된다. 임창연이 군자형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 또한 아내를 자신의 아래에 두려는 전형적인 사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취미삼선록>에서 무양공주는 당자형 남편과 같등을 겪음으로써 즉 남편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한 같등으로 인해 자기공간을 지향한다면, <화정선행록>에서 충효혜는 남편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 아닌, 당대 남성의 아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자기공간을 찾아가려 한다. 이는 <취미삼선록>에서의 양송처럼 남성의 기질적 문제로만 돌려버릴 수 없는, 당대 남성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36) <화정선행록> 5권, 75쪽.

### 3.3. 공적 체험의 부재 / 공적 체험과 자기각성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와 <화정선행록>의 충효혜가 가지는 차이점 중의 하나는 바로 공적 체험의 유무이다.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가 대외적 경험이 부재하다면,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전장(戰場)에 까지 참여하는 대외적 활약을 보여준다.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는 겸양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심궁(深宮)의 자라 문견(聞見)이 고로(孤陋)ᄃᆞᆫ”<sup>37)</sup>다는 그녀의 말처럼, 공적 경험이 전무한 인물로 나온다. 반면,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팔지 괴구ᄃᆞᆫ와 평디풍파(平地風波)의 부모를 실니(失離)ᄃᆞᆫ고 몸이 스쳐(四處)의 표령(飄零)ᄃᆞᆫ”<sup>38)</sup>였다는 그녀의 말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결국에는 사천 지방의 반란을 평정하는 공까지 세우는 인물로 나온다.

물론, <취미삼선록>에서는 2대에 걸친 여성의 수난담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무양공주 모녀가 2대에 걸쳐 못한 남편을 만남으로써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야 했던 사적인 경험의 폭이 깊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sup>39)</sup> 그럼에도 이러한 경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고 있어 당대 여성 일반 혹은 남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충효혜는 이런 대외적 활동 속에서 여자가 규방 밖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당대의 예법을 어긴 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자의식이 짙게 된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런 대외적 활약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위치에 놓여야 함을 깨닫게 된다.

우선 그녀는 대외적 활약을 통해 능력면에서 남녀가 동등할 수 있다는

37) <취미삼선록> 상, 38쪽.

38) <화정선행록> 4권, 93쪽.

39)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소인호, 앞의 논문 ; 이승복, 앞의 논문 ; 구선정, 앞의 논문 ; 임치균, 앞의 논문.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영주 대보산 니허진인의 제즈 월청도시라 호는 도인(道人)이 니르러 신출귀몰(神出鬼沒)호는 지조로 요적(妖敵)을 잡고 뉴길을 버히미라 이 스흘의 공(功)이오 국가홍복(國家洪福)이라 엇지 미신(微臣)의 공이리잇고”<sup>40)</sup>라고 임창연이 임금에게 주달하는 데서 볼 수 있듯, 사천의 반란을 평정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이 충효혜의 공로 덕분이었다. 그녀가 임창연과 혼인하러 가마를 타고 가는 길에 못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많은 인명을 살린 공로에 대해 “화녕옥주[충효혜]의 덕(德)이름 칭사(稱辭)하야 벌이 엉기며 기암이 피듯 짓궂며”<sup>41)</sup> 칭송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그녀는 여성도 남성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그렇기에 그녀는 혼인 첫날밤에 선뜻 “외람(猥濫)하나 군즈 지기(知己)로 더접호시던지라 고인(故人)은 벗을 위하야 목숨을 앗기지 아녜니 니 군지 성교(聖教)로 일신(日新)호시미 엇지 쇼” 지스(小小之事)로써 처당치 못호시리잇고”<sup>42)</sup>라고 남편에게 말한다. 자신을 남편에게 딸린 수하처자로서가 아니라 지기로서 즉 남편과 동등한 한 인간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녀는 여성 또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그녀는 사천의 반란을 평정한 공로로 서평후에 봉해지며 이에 따라 천자가 하사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일생을 보내려 한다. 시택이란 곳은 적국과의 소모적 갈등 속에서도 남편의 절제를 받으면서 지내야 하는 괴로운 공간이기에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으로 향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충효혜에 대해 남편 임창연이 “괴도(怪道)”의 무리라 말하자, 그녀는 천자 앞에 나아가 자신의

40) <화정선행록> 4권, 22쪽.

41) <화정선행록> 5권, 54쪽.

42) 위의 책, 73~74쪽.

소원을 청하게 된다.

필경(畢竟)은 도로(道路)의 뉴리(流離)하고 진뎡(陣中)의 돌입(突入)하야 녀행(女行)이 파천(破天)하고 신(臣)의게 무공(無功)하오나 창연(蒼煙)의게 은혜 업지 아니하오지라 군상(君上)도 표장(表章)하사 갑호(甲呼)시미 계시거늘 창연이 엇지 홀노 갑호미 없스리잇고 이러(如)호므로 첩(妾)의 원(願)을 조차(조차) 몸을 허(許)야 바로 피세(避世)함도 아녀 황은(皇恩)으로 어든 집의 안과(安過)함도 허치 아니르니 이는 녹(碌碌)히 부(夫婦)의 스정(私情)을 관념(觀念)하야 감히 상전(上殿)의셔 억누(抑勒)하야 고희(苛)미 아조 이뉴(異類)로 밀위니 신이 감히 슈은(受恩)코져 하미 아녀 창연의 빚은(背恩)을 혼(恨)하고 녀즈(女子) 되틀 슬허( 슬허)하옵느니 (….) (〈화정선행록〉 13권, 11~12쪽)

자신이 사방을 떠돌다가 진중에 돌입한 것은 여자로서의 행실을 잃은 것이지만 남편에게는 목숨을 살려준 큰 은혜가 있고 천자도 자신의 공을 표창하여 값아 주었는데 자신이 황제가 하사한 집에서 편히 거처하려는 것을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배은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기실 시댁이라는 공간만을 놓고 보았을 때, 처자를 고루 갖추고 큰 벼슬을 한 채 편히 쉴 공간이 있는 임창연과 큰 공을 세우고도 적국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지 못한 채 남편의 절제를 받아야 하는 공간밖에 없는 충효혜의 처지는 대비되지 않을 수 없다. 공간에 대한 이러한 인식적 각성이 충효혜로 하여금 자신만의 공간을 지향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와는 달리,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대외적 경험을 통해 당대 여성 일반 혹은 남성 전반에 대한 깊은 각성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경험의 폭에 따른 자기각성이 그녀로 하여금 성의궁에서 종신할 결심을 하게 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요컨대, <취미삼선록>에서 무양공주가 적국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못한 남편을 만났다는 특수한 상황이 부각되는 가운데, 별다른 자기각성 없이 못한 남편을 피해 탈속적 자기공간으로 향한다면, <화정선행록>에서 충효혜는 적국보다 열세의 상황에서, 군자형 남편과의 불화를 통해 당대 남성 일반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대외적 활약을 통한 자기각성 속에서 탈속적 자기공간으로 향한다. 이러한 원인의 차이가 바로 탈속 공간 추구의 지속성의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 4. 여성의 공간과 관련한 작품의식의 차이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은 그 제목에서부터 여성을 중심에 두고 있는 작품이다. ‘취미삼선록’은 취미궁의 세 신선 즉 무양공주, 관도공주, 여음공주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이고, ‘화정선행록’은 화정공주 즉 충효혜의 선행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이다.

그런데 앞서 탈속적 자기공간을 추구하는 양상과 원인을 비교하여 살펴해보았듯,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였다 하더라도, 특히 여성의 공간에 관한 화소를 특화시켜 다루었다 하더라도 두 작품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여성에 관한 내용은 곧 이들 작품의 핵심 주지가 되기에, 이러한 차이점은 작품 전체의 주제의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취미삼선록>의 ‘취미궁’과 <화정선행록>의 ‘성의궁’이라는 탈속적 공간의 성격을 살펴보면, 전자는 당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체제 하에서의 여성의 일반적인 공간 즉 시대에 대한 ‘일시적 일탈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면, 후자는 ‘근원적 대체공간’으로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취미삼선록〉에서 무양공주 등이 잠시 취미궁에 머물지만 종국에는 부모인 천자와 황후로부터 부덕(婦德)을 쌓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시택에 복귀하는 상황과, 〈화정선행록〉에서 충효혜가 한 번 성의궁에 든 이후로는 양가 부모에게 계절인사를 하는 것 외에 계속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종신하는 상황을 대비해 보았을 때 잘 드러난다.

이러한 여성 공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취미삼선록〉이 조선후기 가부장제 체제 아래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압과 여성의 자기공간의 부재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당대 남성 일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인 내용으로 축소되고 있는 점과 관련된다. 〈취미삼선록〉에서 소인형 남편과의 갈등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은, 무양공주가 군자형 남편을 만났다면 갈등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역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무양공주의 대타적 자리에 군자형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양공주 등이 자리하고 있는 점은 이를 잘 반영한다. 즉, 〈취미삼선록〉은 특수한 국면에 처한 여성의 고난과 그러한 처지에서의 여성의 자기공간에 대한 지향에 관해서만 한정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양공주 등의 세 공주가 취미궁에서 지내는 모습이 마치 소풍 나온 여인들처럼 경쾌하게 그려지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시택을 떠나는 비장함이 드러나기보다는 한 바탕의 화전놀이를 하고 오는 듯한 가벼움을 보여준다. 이는 〈취미삼선록〉이 당대 남성중심적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롱 정도에서 그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반면, 〈화정선행록〉에서는 가부장제 체제 하에서의 당대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압과 여성의 자기공간의 부재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군자형 남편과의 갈등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는 단순히 충효혜의 남편인 임창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 남성 일반의 문제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정선행록〉에서는 남

성중심적 가부장제 구조 아래에서의 여성의 고난과 자기공간의 부재를 전경화(前景化)하여 문제 삼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군자형 남편, 선인형 적국과의 사이에서도 성별과 신분에 따른 권력 관계에 의해 여성에게 시집이란 공간이 얼마나 폭압적일 수 있는가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화정선행록>에서 충효혜가 자신의 아들까지도 버려둔 채 자신만의 공간으로 떠나는 대목에서 비장미가 느껴지고, 그 무게감에 독자가 압도되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여성의 공간과 관련한 제 양상을 통해 보았을 때 <취미삼선록>은 당대 남성중심적 가족구조에 대한 ‘일시적인 조롱’ 정도로 그치고 있다면, <화정선행록>은 ‘전면적인 비판’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문제가 결국 이들 작품의 핵심 주지이기에 <취미삼선록>은 남성중심적 체제에 대한 ‘부분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는 작품이라면, <화정선행록>은 ‘전면적인 비판’을 문면에 깔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차이가 나게 된 데는 두 작품의 창작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취미삼선록>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에 창작된 작품으로,<sup>43)</sup> <화정선행록>은 19세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논의되고 있다.<sup>44)</sup> 둘 다 향유층에 있어서는 상층뿐만 아니라 그 아래 계층까지도 포괄하는 작품으로서 평가받고 있기에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지만,<sup>45)</sup> 그 창작시기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43) 구선정, 앞의 논문, 8~9쪽. <옥원재합기연> 제 14~15권 표지 안쪽의 당대 18세기에 유통되던 소설목록 속에 <취미삼선록>의 제명이 들어 있는 것을 토대로 <취미삼선록>은 그 창작 시기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44) 장효현, 『<화정선행록> 연구』, 『정신문화연구』 26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94~95쪽. <옥원재합기연> 표지 안쪽에 필사되어 있는 소설목록이나, 19세기 전반에 이루어진 홍희복의 <제일기연> 서문의 장편소설 목록에 <화정선행록>의 제명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그 창작시기가 19세기일 것이라 추정하였다.

45) <취미삼선록>의 향유층은 상층뿐만 아니라 하층으로까지 내려갔을 것이라 보았고(구선정, 앞의 논문, 92쪽), <화정선행록>의 향유층 또한 상층뿐만 아니라 기층 민중

면, 당대 가부장제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성숙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더욱이 17세기 ‘예교주의’라는 명목 아래 강조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체제가 조선후기로 가면서 더욱 더 공고해지는 양상을 보이기에, 이에 대한 비판적 수위 또한 후대로 가면서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두 작품은 비록 장편이지만 그 향유층이 단순히 상층이 아니라 그 아래의 계층으로까지 내려갔을 것이라 추정되는 작품들로서, 특히 〈화정선행록〉과 같은 작품은 당대 매우 자각 있는 여성이 지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렇기에 특권계층인 상층 남성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수위 높게 전달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 5. 결론

본고에서는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을 대상으로 여주인공이 탈속적 자기공간을 추구하는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작품의 여성 공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두 작품의 주제의식의 차이를 규명하려 하였다.

두 작품 모두 여주인공이 남편마저도 배제한 채 시댁을 벗어나 독자적인 공간을 지향하고 있는 문제적인 국면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격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탈속적 자기공간은 선계(仙界)와 흡사한 곳으로, 조선후기 당대에 남편 혹은 적국(敵國)과의 갈등 때문에 시댁에서 고초를 겪었던 여성들이 한시 등을 통해 상상 속으로 지향했던 선계를 구체적인 공간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였다. 이를 통해 당대 여성들에게 대안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

---

으로까지 확대되었을 것이라 보았다.(김미선, 앞의 논문, 75쪽)

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취미삼선록>에서는 여주인공이 일시적으로 탈속적 자기 공간에 머문다면, <화정선행록>에서는 여주인공이 지속적으로 탈속적 자기공간에 머문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탈속 공간을 추구하는 원인과 관련지어 검토하였다.

먼저 <취미삼선록>의 여주인공인 무양공주가 늑혼(勒婚)으로 하가(下嫁)한 공주로서 사대부 여성인 적국과 갈등을 겪는다면, <화정선행록>의 여주인공인 충효혜는 정혼자가 늑혼당한 여성으로서 늑혼으로 하가한 공주인 적국과 갈등을 겪는다. 다음으로,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가 소인형 남편과 대립한다면,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군자형 남편과 대립한다. 마지막으로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가 대외적 경험이 전무하다면,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전장(戰場)에까지 참여하는 등의 대외적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된다. 즉, <취미삼선록>에서 무양공주가 적국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못난 남편을 만났다는 특수한 상황이 부각되는 가운데, 별다른 자기각성 없이 못난 남편을 피해 자기만의 공간으로 향한다면, <화정선행록>에서 충효혜는 적국보다 열세의 상황에서, 군자형 남편과의 불화를 통해 당대 남성 일반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대외적 활약을 통한 자기각성 속에서 자기만의 공간으로 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 논의를 통해, <취미삼선록>의 ‘취미궁’이 당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아래에서의 여성의 일반적인 공간인 시택에 대한 ‘일시적 일탈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면, <화정선행록>의 ‘성의궁’은 시택에 대한 ‘근원적 대체공간’으로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취미삼선록> 작품 전체의 주제 또한 당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체제에 대한 ‘부분적인 비판’으로 귀결된다면, <화정선행록> 작품 전체의 주제는 남

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으로 함축되고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차이가 가능했던 것은 〈화정선행록〉이 〈취미삼선록〉보다 후대에 창작된 작품이기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더 성숙해진 결과라 추정하였다.

1879년 입센의 작품 〈인형의 집〉에서 자신을 노예처럼 대하는 남편의 모습에 자신의 존재가 집에서 인형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과감히 문을 나서는 ‘로라’를 환기한다면,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나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를 떠나는 ‘조선후기판 로라’라 할 수 있다. 이들의 행보를 통해 고전소설 속에서 여성의 공간에 대한 파격적인 사상을 담아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존재함을 밝혀낼 수 있었다.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 등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로라’라면,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집을 나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로라’인 것이다.

## □ 참고문헌

- 구선정, 「<취미삼선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105쪽.
- 김명희, 『허난설현의 문학』, 집문당, 1987, 84~117쪽.
- 김미선, 「<화정선행록> 연구-결연양상과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86쪽.
- 김열규, 「여성과 집에 관한 시론」, 『가와 가문』(김열규 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8, 1~29쪽.
- 김영선, 「조선시대 양반가옥의 공간구조를 통해 본 여성통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108쪽.
- 박부진, 「한국사회의 공간문화와 성차(性差)」, 『여성가족생활연구』 4,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1999, 137~157쪽.
- 소인호, 「<취미삼선록> 연구」, 『국어국문학』 113, 국어국문학회, 1995, 171~194쪽.
- 손찬식, 「호연재 김씨의 시문학 연구」, 열상고전연구회 편, 『호연재 김씨의 생애와 문학』, 보고서, 2005, 151~191쪽.
- 신혜경, 「공간문화여 여성」, 『한국여성학』 12권 2호, 한국여성학회, 1996, 227~260쪽.
- 심재숙, 「고전소설에 나타난 늑혼 삽화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873~907쪽.
- 이숙희, 「허난설현과 김호연재의 시세계」, 『한문교육연구』 20,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227~265쪽.
- 이순구,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119~142쪽.
- 이승복,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의 성격」,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283~322쪽.
- 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1~200쪽.
- 임치균, 「<취미삼선록> 연구-<옥환기봉>, <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351~378쪽.
- 장효현, 「<화정선행록> 연구」, 『정신문화연구』 26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93~120쪽.

- 조광국, 「〈화정선행록〉에 나타난 다중결혼의 복합 구조」, 『한국문학논총』 45, 한국문학회, 2007, 91~115쪽.
- 탁원정, 「가정소설에 나타난 ‘집’ 연구」,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407~450쪽.
- 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180쪽.
- 태혜숙, 「한국의 식민지 근대체험과 여성공간-여성주의 문화론적 접근을 위하여」, 『한국여성학』 20, 한국여성학회, 2004, 33~56쪽.
- 한길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임화정연〉, 〈화정선행록〉, 〈현씨양옹쌍린기〉 연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93쪽.
- \_\_\_\_\_,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 영웅에 관한 소고」,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325~355쪽.
- \_\_\_\_\_,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171~191쪽.
- 홍형욱, 「조선후반기 가족의 주거조절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보』 4, 한국민속학회, 1994, 139~175쪽.
-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곽광수 옮김), 민음사, 1990, 113~200쪽.
- 배리 소온·매릴린 알름, 권오주 외 옮김,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한울아카데미, 1991, 1~338쪽.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arch for Unworldly Self-space of the Heroines in *Chuimisamsonrok* and *Hwajungsonhaengrok*

Han, Gil-yeon

Heroines in *Chuimisamsonrok* and *Hwajungsonhaengrok* leave to the self-space undergoing trouble with concubine or husband. This thesis compare with the aspect of the search for self-space of each heroines.

The heroines in these two novels all search for unworldly self-space leaving the house of husband. Buy the way, these self-space are described as fairyland so these two novels show a point of sameness giving body to the search for fairyland as in the world of Chinese poetry. But then these two novels show differences also. In *Chuimisamsonrok* the heroine Muyang princess abides in the unworldly self-space 'Chuimi palace' for a little while, in *Hwajungsonhaengrok* the heroine Chunghyohye keeps her residence in 'Seongui palace', the unworldly self-space, continuously.

The cause of these differences is allied to the motive of the search for unworldly space. Muyang princess, the heroine of *Chuimisamsonrok* is confronted with unreasonable marriage and conflicts with concubine of gentry class birth. Chunghyohye, the heroine of *Hwajungsonhaengrok*, conflict with the princess being married unreasonably and her husband was married unreasonably. Next, Muyang princess in *Chuimisamsonrok* comes into collision with husband of a small mind, but Chunghyohye in *Hwajungsonhaengrok* comes into collision with husband, a man of true honor. Last, Muyang princess in *Chuimisamsonrok* has no outside experience, on the other hand Chunghyohye in *Hwajungsonhaengrok* accomplishes awakening of herself through the outside experiences as participating in battle field.

From these analyses, 'Chuimi palace' in *Chuimisamsonrok* is the temporary

deviational space against husband's house as the general space under patriarchic system. but 'Seongui palace' in *Hwajungsonhaengrok* is shown as substantial alternative space against husband's house. As a result, the main subject of *Chuimisamsonrok* is temporary mockery to male-dominated patriarchic society. On the side, the overall theme of *Hwajungsonhaengrok* inclines to the more positive critique about male-dominated patriarchic society.

**Key words** : *Chuimisamsonrok*, *Hwajungsonhaengrok*, woman, space, unworldly self-space, space culture, temporary deviational space, substantial alternative space

- 본 논문은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1월 11일부터 2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3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